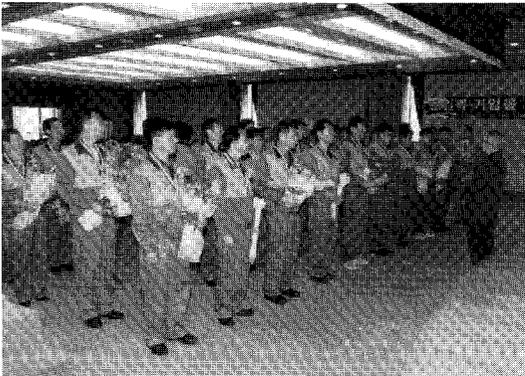




동양시멘트(주)

창립 제46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6월 13일 창립 46주년을 맞아 삼척공장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장기근속자와 2002년도 하반기 우수제안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30년 장기근속자로 선정된 삼척공장 자원팀 김대용 사우를 비롯하여 25년 장기근속자 21명, 20년 근속자 49명, 15년 근속자 5명 등 총 76명에게 각각 근속기념패와 순금메달이 수여되었다. 또한 2002년도 하반기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2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본사에서는 영업본부 김배호 전무도 30년 장기근속자로 선정되어 현재현 회장으로부터 상패와 메달을 받았다.



제24대 노조위원장 및 제8대 삼척지부장 선거 실시

노동조합은 지난 7월 28일 노조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제24대 노조위원장에 김광수 후보(부 이 정만, 최복만)를 선출하였다. 이날 선거는 삼척공장을 비롯한 동해, 부산, 창원, 광양, 군산, 대전 등 총 7개 투표소에서 실시되었는데, 전체 유권자수



502명 가운데 49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새로운 노조위원장에는 61.6%의 지지를 얻은 기호 1번 김광수 후보가 당선되었고, 함께 실시된 삼척지부장 선거에서는 기호 3번 오상운 후보가 총 투표수 444표 중 227표를 득표해 신임 삼척지부장에 당선되었다. 새롭게 선출된 신임 집행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가 향후 3년간 동양시멘트 노동조합을 이끌어 가게 된다.

임직원 가족 전산교육 실시



삼척공장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기술훈련원에서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은 인터넷 환경설정과 엑셀, 파워포인트 등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삼척공장 임직원 가족들은 자기계발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며 교육 기간내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03년도 제2기 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동양장학재단의 2003년도 제2기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8월 18일 삼척공장 기술훈련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최경덕 이사장 권한대행을 비롯, 김일동 삼척시장, 김대수 삼척대 총장과 재단임원, 학부모 등 2백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장학금은 삼척대 컴퓨터제어공학과 4학년 김은진 외 대학생 21명에게는 각 80만원씩, 고등학생 45명에게는 각 30만원씩 총 67명에게 3,110만원이 지급되었다. 1987년에 설립된 동양장학재단은 지금까지 총 3,524명에게 10억 9,643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밀착된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월공장은 과거 865일 무재해라는 대기록을 세운 바 있어, 이번 무재해 결의대회를 계기로 무재해 1,000일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03년 단체협약 체결



7월 4일 본사 3층 회의실에서 명호근 사장과 한광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03년 단체협약은 지난 5월 14일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종업원의 복리후생과 경영에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13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명호근 사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를 모든 임직원들이 마



쌍용양회공업(주)

무재해 결의대회 개최

영월공장은 7월 1일 무재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임방택 영월공장장과 전 종업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무재해 결의대회는 공장장의 대회사에 이어 관리자, 근로자, 협력회사 대표 등이 무재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안전신조를 제창하는 순으로 거행됐다. 임방택 공장장은 이 자리에서 “생산에 앞서 환경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공장이 되자”라고 말하면서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해 모든 일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 한다’는 의식변화, 공장구내에서의 불안전 행동지적 활동의 강화, 그리고 현장과

음에서 우리나라는 긍지로 일하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조도 회사의 발전과 최고의 목표를 같이 추구하는 위치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한광호 노조위원장도 "회사가 잘돼야 우리도 기분이 좋다"며 "쌍용의 앞으로 나아갈 길만을 바라보고 상호 협조적인 체계에서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고강도 콘크리트 기술세미나 실시



쌍용기술연구소는 6월 14일 부산에 신축할 69층의 초고층 건물 공사 감리를 담당하는 (주)동일건축의 요청으로 공사에 사용할 고강도 콘크리트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기술세미나에는 동일건축 대표이사 및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강도 콘크리트 기술현황과 기술력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번 기술세미나를 계기로 기술연구소와 레미콘품질관리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콘크리트(400~600kg/cm)제품의 현장 적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포콘크리트 제품 설명회 개최

특수시멘트팀은 6월 4일 대전의 쌍용기술연구소에서 기포콘크리트 제품 설명회를 열고 제품의 사

업화 추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쌍용양회 기포콘크리트 제품은 방통시멘트 마감 전 단계에 시공하는 것으로 아파트 바닥 차음 및 단열효과가 뛰어나다.



아세아시멘트(주)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 개최

7월 21일 제천공장 대회의실에서 '2003년도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이병무 회장 및 이윤무 부회장, 김동열 사장을 비롯한 본사, 제천공장 및 분공장 임직원 총 29명이 참석하였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전에 본사와 제천공장의 200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가, 오후에는 경북권, 수도권, 충청권의 실적 및 계획보고가 있었다. 이병무 회장은 강평을 통해 상반기에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본사 및 공장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신속하게 경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의 아세아시멘트를 이루어왔음을 상기하며, 하반기 불투명한 시장에서도 전 임직원이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실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SUNGSHIN

성신양회(주)

CI·BI 후속작업 순차적으로 진행

기업 이미지 제고 전략에 따라 회사명을 '성신양회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신규 BI·CI가 확정됨에 따라 후속작업을 전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진



행하고 있다.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도로변(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부근, 중앙고속도로 매포IC 부근)에 야립광고를 설치하였으며, 시멘트 및 몰탈 포장지대도 변경하였다. 또한 레미콘 차량 도색 및 각 사업장별 사이로도 색, 각종 Sign류의 변경등 후속작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작업은 올해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단양공장, 양회업계 첫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지난 8월부터 단양공장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작업을 착수하였다. 국내 양회업계 최초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인 이번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단양공장의 생산정보 분야를 포함한 기간업무 전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타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합된 생산정보 관리가 가능한 생산관리시스템을 비롯해 설비관리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환경관리시스템 등을 확장성과 신속성을 겸비하도록 닷넷 기반의 웹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된다.

회사채 등급 BBB+로 한단계 상향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8월 27일부터 성신양회 회사채 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안정적)로 한단계 상향했다.(기업어음 등급은 A3+로 유지) 한신평은 이번 등급 상향과 관련, “우수한 영업내수 입찰출력을 기반으로 자금수지 호조가 이어지며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금리 하락과 신용도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로 영업의 수지도 크게 개선되는 등 자금 선순환구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채무 상환능력을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려시멘트제조(주)

제3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제37기 정기 주주총회가 6월 26일, 장성군 장성 문화원 2층 강당에서 주주와 임직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주총에서는 주당 액면가 20%인 1,000원씩의 현금배당을 의결하고 박홍래 계열사 고문과 임수택 교보증권 이사를 상임이사로 배척수 전 광주은행 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이사는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제37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이사와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옥계공장 무재해 1배 달성



지난 6월 30일 옥계공장에서 실빙 가르노 사장을 비롯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경창수 춘천지도원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옥계공장 설립 이후 처음 무재해 1배 달성을 축하하는 인증서 수여 및 유공팀, 유공자 표창이 있었다. 금번 옥계공장 무재해 달성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절을 겪었던 시기들을 극복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전 임직원들의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려는 실질적인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새롭다 하겠다. 옥계공장 무재해 1배 기록은 2002년 10월 8일부터 2003년 6월 8일까지 단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은 기록이다.

윤호현 생산본부장, 산업평화상 수상



업계동정

지난 5월 1일 제113차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기념대회에서 윤호현 생산본부장이 산업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부터 강원도 지사상으로 격상된 산업평화상은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에 기여한 사용자, 근로자 각 2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금번 수상은 당사 노사가 함께 신노사 문화를 창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사랑의 집짓기” 참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6까지 실시된 2003년 해비타트 번개 건축 사업에 당사 실뱅 가르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여름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소중한 봉사정신을 실천하였다. 해비타트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자원 봉사자들의 노력과 후원자들의 건축 금과 기자재 지원, 그리고 입주 가정의 자활 노력으로 민간 차원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하는 사랑을 신념으로 하는 운동으로서 라파즈한라시멘트는 2001년을 시작으로 건축에 소요되는 시멘트 전량을 후원하는 것은 물론, 뜻있는 사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참가하고 있다. 금년 사랑의 집짓기 행사는 지난해 태풍 루사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강릉·삼척 지역이 주사업지로 선정되

어 동일 지역권에 있는 당사는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2003년 건축 사업의 성공적 계획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해비타트 프로그램 참여는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있다.



한국시멘트(주)

팀워크 향상 Training 행사 개최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경남 거창군 소재 금원산 휴양림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팀워크 향상 Training”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익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원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경영’을 천명하고 ‘일등회사’를 추구하기 위한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번 행사는 팀워크 향상이라는 취지에 의거, 행사 준비에서부터 거의 모든 과정이 각팀별 자율적으로 진행되었다. 부서별로 자율적인 미션을 선택하여 팀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금원산 등반시에는 ‘자연보호’를 권장하는 리본을 부착하기도 하는 등 팀워크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